



4면

H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 성과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음 9월 13일) 제3602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현안 추진 속도 불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과 대광법 등에 대한 지지와 협력 발언이 잇따라 이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자치도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더디게 진행되는 전북의 속원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 표현과 함께 지원을 당부하는 모습들이 연출됐다.

대다수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SOC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잦바리 직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 갑)은 "새만금사업 이후 8년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마다 새만금 사업의 주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서, "관여하는 기관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그 사업을 포괄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자치도 국정감사

새만금 SOC·대광법 등 여야 의원 지원·협력 약속 새만금사업 주체 일원화·광역교통 지원 필요성 제기

인)도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사업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지연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35년간 기본구상만 7번이 바뀌었고 시공이 너무 많다. 주체를 하나로 일원화 단 순화해야 새만금 공사를 속도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사업 주체의 일원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국토교통부 간부를 직접 앞으로 불러내 "지난해 잦바리 직후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은 국토부가 대통령 심리경호를 한 것"이라며 질타하고, 용역검토로 늦어진 8개월간의 지연 보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의힘 연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냐"며, "새만금 공항과 관련하여서는 청주공항의 성공 과정을 잘 본

석해 전북권의 공항 활성화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에게 주문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소재지 중 유일하게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에 대해 광역교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잇따라 나왔다.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에도 충분한 광역인 교통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

특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와 인구 감소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교통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광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



김관영 도지사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구)은 "새만금과 포항(영일만)간 고속화 도로인 동서 3축 도로망은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동서 화합과 물류 교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전북도 내 일부 구간, 구간이 아직 미완성 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가 대체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보다는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전북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만금과 전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

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도지사로서 정말 큰 힘이 된다"며, "새만금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마음들을 앞으로 국정에 잘 반영해 주셔서 새만금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전주 대방아파트 전기화재, 10일 안성 전기차 화재 등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내년 1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설치 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1년 더 연장해 완화한 것 말고는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

전북 혁신도시 H 아파트는 총주차 공간의 2%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14대를 설치해야 하는 데 현재 12대가 완료되고 나머지 2대는 1년 더 유예를 받아 2026년 1월로 연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기 5대를 지상 이전 하기 위해 전주시에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고, 이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한다.

전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문제 해결 구체적 방안 필요

충전시설 등 설치 의무화 연장 말고는 추가 대책 없어 관련 행정 규칙 제정·충전소 지상 설치 등 제기돼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작동은도를 전기차 충전 구역은 63도에 55도로 낮춰 잡았고, 충전율을 80% 미만으로 권고하는 등 화재 예방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지 못한다는 것.

관리소장은 전기차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D 아파트는 전기충전소를 지상 이전 할 곳이 없으며, 질식 소화포, 방화벽, 이동식 방사 장치 등을 시에서 50% 보조받아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

이라고 한다. 한편 중앙부처에서 9월경 보내온 지시 공문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 시기를 2026년 1월 27일까지로 1년간 유예하고, 과부하 시 자동 차단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신규 설치나 지상 이전 시 설치 한다는 내용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 안전과는 신속 지하 충전시설 화재 안전시설 설치 강화, 지하 충전시설 불가피 시 지상 인근 설치 및 화재 안전시설로 스프링클러, 방화벽, 질식 소화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지난 9일 발생한 전주 대방아파트 지하 전기차 화재사고 현장. 사진은 화재 진압 후의 모습이다.

하고 실태조사를 지난 8~9월에 실시했다고 한다.

전주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25년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수요 조사 및 지상 이전 권고를

하고 있다. 2025년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며 8월 26일까지 마쳤다.

전기차 충전 구역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10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700명 정도(100세대 이상 관리주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전율을 80% 미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마쳐야 가능하므로 조레나 법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량이 충전율이 낮을 경우에는 분명히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비록 법적 효력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행정 규칙이라도 만들어

서 전주시 각 공동주택에 내려보내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차의 지상 이전이 가능한 곳이 있고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등이 있어 비용 문제와 소방 기술적인 문제 등이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얽힌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먼저 신속시설의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층의 경우 지상 이전이 가능한 곳은 지상으로 올리고, 지상 이전이 불가능해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최상층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

/김육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접수기간 : 2024. 10. 10. ~ 11. 5.

방 법 : 불안군의회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연 락 처 : 063-580-4510

부안군의회

좋은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